

존경하는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 여러분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준비위원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저 구자열의 승리가 아니라 변화와 희망을 선택해 주신 원주시민의 승리입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경쟁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지지 여부를 떠나 37만 원주시민 모두의 시장으로서 시정을 준비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준비위원 여러분에게 원주의 미래를 맡겨주셨고, 이제 그 기대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정책 조직입니다. 또한 겸손과 협력, 객관성의 자세로 시민 중심의 실행 가능한 시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위원회는 단순히 업무를 인계받는 조직이 아니라 원주의 향후 4년, 아니 10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임 조직이어야 합니다.

시민들은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약속한 비전과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궁금해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기대를 행정의 언어로, 정책의 언어로, 예산의 언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준비위원 여러분께 세 가지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준비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필요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검토하는 사업 하나, 정책 하나가 결국 시민의 생활비와 일자리, 교육과 돌봄, 안전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현실을 정확히 진단해 주십시오.

준비위원회는 새로운 시정을 준비하는 조직이지만 동시에 현재 시정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잘된 것은 계승하고 부족한 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정치적 시각이 아니라 사실과 데이터,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원주시의 현재를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날카로운 비판보다 꼼꼼한 진단과 실질적인 해결 대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공약은 약속이지만 행정은 실행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비전이 시민의 삶 속에서 실제 변화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재정과 법률,

조직과 인력, 중앙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력까지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약의 추진 방식과 단계,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께 약속한 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준비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직자들을 평가하거나 지시하는 자세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협력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은 앞으로 새로운 시정을 함께 만들어 갈 가장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행정의 경험과 현장의 지혜가 존중받을 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비전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준비위원회가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핵심 공약이 실제 시정 운영 체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값원주는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민생행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첨단원주는 원주의 미래 먹거리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매력원주는 시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활력원주는 청년과 여성, 신중년과 가족 모두가 희망을 갖는 도시를 만드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안심원주는 돌봄과 복지, 안전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정책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각 분과에서는 이러한 비전이 실제 사업과 조직 운영, 재정 계획 속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시정 슬로건, 그리고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 등 평소 저의 철학에 맞는 시민 참여형 준비위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위원 여러분

시민들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구호보다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준비위원회가 보여주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준비하는 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찾아주시고, 시민을 만나주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드는 준비보고서 한 장, 정책 제안 하나가 앞으로의 원주시정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원팀입니다.

시민의 신뢰를 받는 준비위원회,
원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준비위원회,
그리고 새로운 원주의 출발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준비위원회의 성공은 보고서의 두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분명하게 바뀌느냐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변화를 준비하겠습니다.

준비위원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새로운 원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